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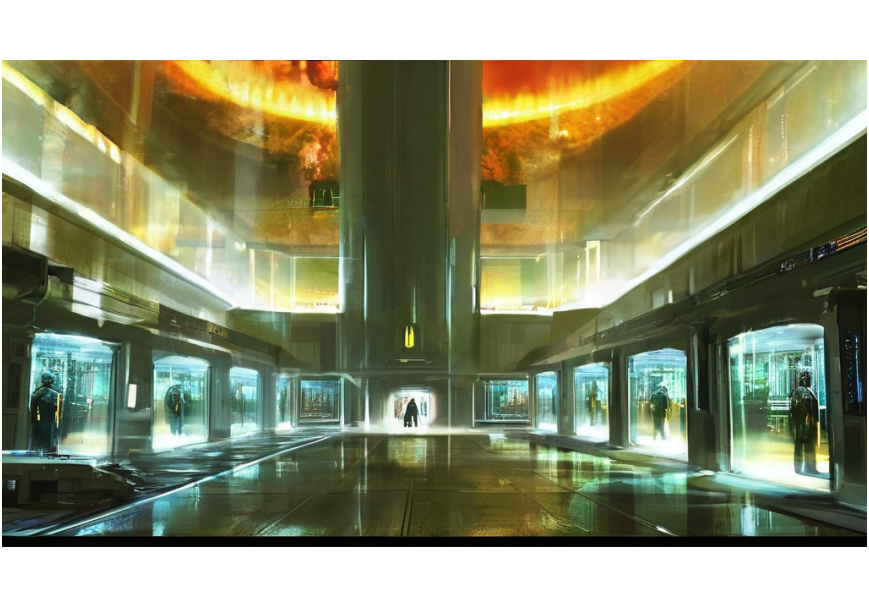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7

❖

은성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오리엔티스 기지의 양자 융합 컴퓨터실이었다. 비현실적인 규모와 크기를 가진 메인 컴퓨터가 거대한 나무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마치 오래 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위용을 나타내고 있었다. 메인 컴퓨터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케이블 들이 마치 나무 뿌리를 연상시키는 형상으로 여러 캡슐에 연결되어 있었다.



동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캡슐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정체가 서현 들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 “서현의 클론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지?”
> “그만큼 관리할 질서의 폭이 넓고 다양해서, 적어도 난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국가, 재계, 군사 모두 저마다 다른 질서를 원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질서들을 큰 질서 안에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 “꼭 서현이어야 하나?”

은성이 동녘을 노려보았다.

> “내가 당신을 원망하는 이유야. 이건 당신이 설계한 그림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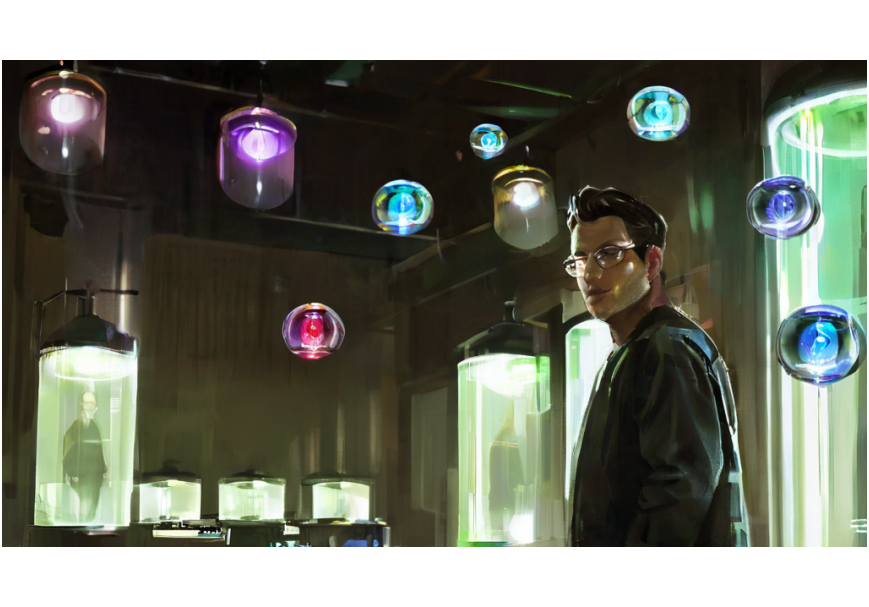
동녘이 고개를 저었다.

> “난 시스템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어.”
> “그건 당신에게 주어진 숙제이지, 내가 알 바가 아냐.”
> “네가 나에게 원하는 건 뭐지?”

동녘은 오랫동안 의문을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은성에게는 분명 동녘을 해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동녘은 격납고에서 오리엔티스 대원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부터 그것이 궁금했었다.

> “…당신이 서현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세계 질서의 허브로서.”
> “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은성이 미소 지으며 허공에 손짓을 했다. 여섯 캣츠아이가 허공에서 나타나 동녘과 은성의 주변의 주변을 빙 에워쌌다. 동녘은 가슴팍에서 간질거리는 느낌을 느꼈다. 곧 동녘의 품 속에 있던 캣츠아이가 허공에 떠올라 다른 캣츠아이들과 합류했다. 일곱 캣츠아이가 동녘과 은성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 “사랑의 신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 하신다. 당신이 회개하고 신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용서를 받을 것이며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인류 역시 구원 받겠지. 하지만 당신이 거부한다면, 또 다른 대안을 찾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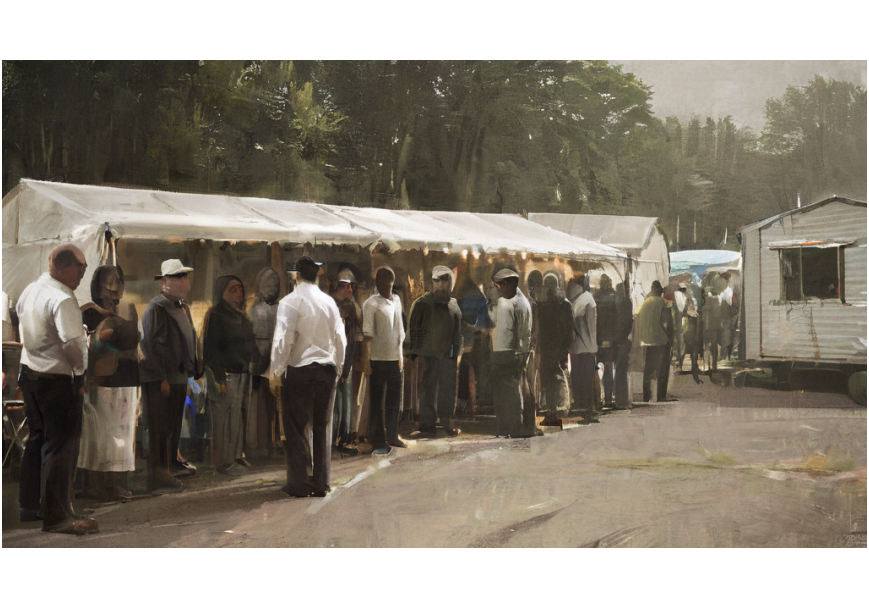
은성의 말이 고조되자 이에 동조하듯 캣츠아이의 공전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 “이제 당신의 순종이 남았다. 당신이 여기서 절을 하고 신에게 순종한다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은성은 절을 하라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 “순종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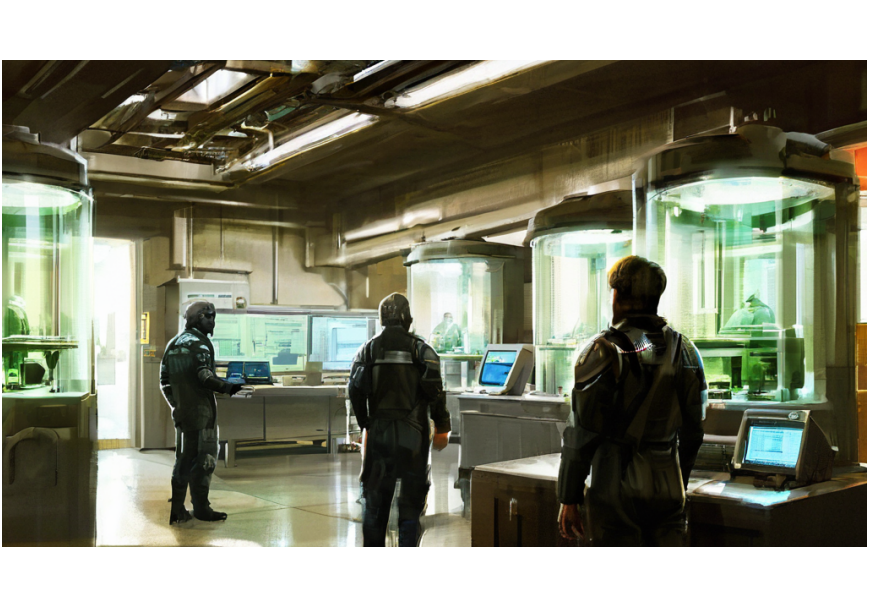
은성과 오리엔티스의 계획에 따라, 사람의 몸에 칩을 심고 이마에는 도장을 찍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덕현은 시내에 설치된 오리엔티스의 간이 클론 시설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빈민가 동네 사람들 중 상당수는 결국 칩과 도장을 받기로 하고, 시설 앞에 줄을 서 있었다. 순혜 엄마를 발견한 덕현의 표정이 찌그러졌다.

고개를 돌리자 클론 반대파가 시위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경훈 아빠가 선두에 서서 클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깃발과 팻말에는 각각 ‘666 악마의 표식을 받는 자들은 지옥에 가리라’, ‘자유의지 수호!’ 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덕현이 모든 것을 한 눈에 보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질서와 혼란이 기묘하게 어우러진 세상이 보였다.

❖



> “클론 대상자 수가 전국 누적 8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2일 안에 100퍼센트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엔티스 기지의 메인 조종실, 준섭이 전국 지도 위로 떠오르는 클론 칩을 심은 사람들의 숫자 기록을 보며 말했다. 준섭의 말이 엄밀하지 않다 느낀 대민이 끼어들었다.

> “물론 여기서 100퍼센트는 물론 반대파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클론 반대파는 어떤 시궁로 회유해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종교 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고를 듣던 치호가 물었다.

> “반대파의 숫자는?”
> “십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민의 대답을 들은 치호가 고민이 역력한 표정으로 턱을 어루만졌다.

> “반대파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 “근데 대장,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 우리 모두 자유의지를 잃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 “그건 나도 모른다. 우린 어차피 군인이니까 상명하복 해야 하는 위치다. 그러니 그동안 은성 단장이 조종하는 멀티 컨트롤도 감수해 온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대민이 끼어들었다. 평소보다는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 “멀티 컨트롤이 물론 군사 작전에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생활이 있고,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를 빼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 “이건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은성의 목소리에 대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은성이 동녘을 데리고 메인 조종실로 들어왔다.

> “이건 그냥 자율주행차 내지는 해수욕장의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권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안전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말이야.”

은성이 메인 조종실의 중앙에 서서 목사가 설교하는 어조로 연설하기 시작했다.

> “이시야서 11장.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우리는 이곳에 천국을 이루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대원들의 ‘아멘’이 이어졌다. 대민만이 홀로 한참을 머뭇거리다 ‘아멘’ 소리를 냈다.

치호가 동녘을 가리키며 물었다.

> “단장, 이 친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까?”

은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 “이분은 내 아버지시고, 오리엔티스를 만드신 분이 아닌가. 흔쾌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네.”

은성이 동녘을 지그시 바라보며 일부러 친근한 듯 툭 어깨를 쳤다.

> “그렇죠, 아버지?”

동녘은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이라 대답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목에서 ‘네’와 ‘응’이 뒤섞이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은성이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치호는 은성에게 노골적인 불쾌함을 드러냈다.

> “지후 전 단장님께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컴퓨터를 통해 컨트롤을 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ZZBB51과 이번에 발견한 ZZBB52 역시 당장에 사용할 일도 없고 말입니다.”

은성이 치호 앞에 섰다.

> “치호 대장.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래. ZZBB51은 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룹들이고, ZZBB52는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탄생시킨 화염검이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책무는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이지.”

그룹들, 두루 도는 화염검, 천국…. 은성의 말을 곱씹던 치호는 문득 어떤 의문을 느꼈다.

> “단장, 언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셨습니까?”

머뭇거리던 치호가 말했다.

> “마치 한재호 전 단장님께서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성이 매서운 표정으로 치호를 노려보았다. 기지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적막함을 참지 못한 치호가 멋쩍은 표정으로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 “그냥 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다들 은혜 받고 있지?”

치호와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다 판단한 은성은 몸을 돌려 대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 “그럼 스타링크와 접속해서 본격적으로 휴먼넷을 진행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되나?”
> “마더 컴퓨터의 미씽 데이터를 풀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풀리기 전이라면 컴퓨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100퍼센트 효율로는 어려울 겁니다.”
> “아버지께서 협조하기로 하셨으니 그건 문제 없을 거다.”

은성이 동녘을 압박하는 어조로 말했다.

Continued to ep.28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